

병영도서관의 근무환경 차이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Differences in Working Environment on the Use in Military Libraries

-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Combat Forces and Service Support Unit -

김용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chen18365@lycos.co.kr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kim@yonsei.ac.kr

Yongchan Kim, Graduate Stud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Giyeong Kim,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최근 군 복무는 국가 인재의 육성, 장병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 및 자기개발 여건 보장 등 보다 발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하는 병영도서관 역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도서관의 근무환경 차이가 이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향후 부대 유형별로 소軍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병영도서관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은 사회와의 단절기로만 바라보던 과거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군 복무를 지향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003년부터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대급 이상 군 부대에 병영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요구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국방부, 2010 국방백서).

그러나 이러한 병영도서관이 모든 부대에서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대는 그 임무에 따라 최전방에서 적과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부대와 후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부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병영도서관의 이용자인 병사들 역시 이러한 소속 부대 유형에 따라 근무환경에 큰 차이를 가지게 되며 이는 곧 병영도서관 이용

에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병영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병영도서관 관련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승섭(2009)은 기존의 병영도서관 관련 연구가 연구자의 수나, 발표 시기, 주제 범위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고 이는 군의 제한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차미경, 송승섭(2005)은 병영도서관 환경을 고려한 운영방안과 육군 병사들의 독서 실태를 연구하였다. 또한 송승섭(2009)은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아직까지 다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대의 근무환경 차이가 병사들의 병영도서관 이용실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군(全軍)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병영도서관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육군의 대대급 부대 병영도서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육군은 병력 규모면에서 국군의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전력으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전투와 지원이라는 부대기능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 지원부대를 각 1개씩 선정하여 현장 실사와 함께 소속병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2011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계획」에 첨부된 병영도서관 평가 지표와 평가 설문지를 토대로 기존 연구의 설문항목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2. 부대별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2.1 부대기능별 근무환경

<표 1>은 조사 대상인 전투부대(A부대)와 지원부대(B부대)의 일반 현황으로서 부대별 소속 병사들의 근무환경 차이를 보여 준다.

격오지에 위치한 전투부대는 일반적으로 잦은 야외훈련과 경계근무 소요로 병사들의 근무시간이 비교적적인 특징이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타 기능 부대보다 높다.

반면 도심에 위치한 지원부대는 행정업무나 보급·정비업무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이 고정적이고 훈련의 빈도나 강도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 부대별 일반 현황

구분	A부대	B부대
부대유형	전투부대 (상비사단 보병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대대)
지리적 위치	절경지역 (강원도 철원군 00리)	후방지역 (경기도 양주시 00동)
주요업무	GOP(General Out Post:일반전초)방어	전시 군수물자 보급, 전투장비 정비
근무시간	비교정적 (야외훈련, 경계근무 등)	비교적 고정적

2.2 부대별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표 2>는 A부대와 B부대의 병영도서관 운영현황으로서 각 항목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유도서는 A부대가 3,500권, B부대는 2,698권이었으며 두 부대 모두 문학도서의 비율이 각각 21%, 34%로서 가장 높았다.

<표 2> 부대별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구분	면적	열람석	관리인원	개관시간	도서 대줄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서 구입 예산	도서 프로그램	도서 확보 경로
A부대	33㎡	12석	1명 (겸직) ※ 기계공학과 전공	평일 09:00~16:00 휴일 09:00~17:00	1주	미운영	미편성	없음	상급부대 지원
B부대	33㎡	10석	2명 (겸직) ※ 환경화학과 전공	평일 19:00~20:30 휴일 13:00~20:30	1주	미운영	미편성	없음	부대장병 기증

3. 조사 결과 분석

3.1 응답자 배경

계급별로는 A, B부대 모두 이병~상병의 비율이 각각 99%, 95%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학력별로는 대재이상이 각각 84%, 87%로 나타났다. 전공별 배경 역시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의 비율이 4:6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3.2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먼저 병사 1인의 월평균 독서량의 경우 '1~2권'(A: 52%, B: 50%), '3~4권'(A: 28%, B: 20%), '5권 이상'(A: 9%, B: 18%)으로 나타나 B부대가 A부대에 비해 다독하는 인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A: 85%, B: 75%), '1시간 이상'(A: 15%, B: 25%)로 나타나 B부대 병사들이 A부대에 비해 독서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두 부대의 월평균 독서량과 독서할 애시간을 조사한 결과 A부대보다는 B부대가 상대적으로 독서하기에 양호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독서를 하는 장소로는 A, B부대 공히 '생활

관'(A: 95%, B: 88%)의 응답비율이 '병영도서관'(A: 2%, B: 3%)을 압도하였는데 이는 개인 행동이 제한되는 군 특유의 단체생활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독서를 하는 시기는 A, B부대 모두 '일과시간 후 자유시간'과 '휴무일'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B부대의 경우 '일과시간' 중에도 독서를 한다는 응답(16%)이 A부대(3%)보다 5배 이상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업무 위주의 B부대 근무환경이 A부대에 비해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선호하는 도서의 종류로는 A, B부대 공히 '문학 관련 도서'와 '취미/오락 관련 도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 등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독서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책을 읽는 즐거움',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 '교양 및 인격의 함양', '마음의 안정' 순으로 나타나 두 부대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병영도서관의 이용빈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A부대가 53%로서 B부대의 41%보다 월등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B부대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B부대에 비해 여러모로 열악한 A부대의 근무환경이 병영도서관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병영도서관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두 부대 모두 '개관시간', '도서의 다양성', '열람공간', '독서프로그램' 항목에서 평균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두 부대 모두 '도서열람 및 대출', '개인 학습공간' 순으로 나타났고 병영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는 두 부대 공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70%)이었으며 그 외 두 부대간의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났다.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두 부대

의 시각이 다소 달랐다. A부대의 경우 '독서시간의 부족',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부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B부대 보다 응답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B부대의 경우는 '도서의 다양성/보유량 부족', '독서습관의 부재' 항목에서 응답비율이 A부대 보다 높았다.

보완되어야 할 사항 역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A부대는 '일정한 독서시간 보장', '독서장소 확충' 항목에서 B부대 보다 응답비율이 높았고 B부대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의 다양성/보유량 확충',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항목에서 A부대 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3 통계적 유의성 검증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근무환경 차이가 병영도서관 이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정 및 χ^2 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적척도를 대상으로 독립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도서관 이용빈도'에서 두 부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두 부대의 독서여건 차이가 궁극적으로 소속 병사들의 병영도서관 이용빈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198)=-1.993, p<.05$).

이어서 질적척도인 '독서 방해요인'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대상으로 χ^2 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검정 결과 독서의 방해요인 중에는 '도서의 다양성/보유량 부족',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부족' 항목에서 두 부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일정 독서시간 보장', '도서의 다양성/보유량 확충', '전문인력 배치',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검정결과를 통해서 전투부대는 무엇보다 충분한 독서시간의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독서의 방해요인으로서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개선책으로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구한 것은 전투부대 병사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도서관 이용빈도와 만족도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부대 독서환경 전반에 걸친 이들의 불만이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부대는 전투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독서여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도서의 다양성과 보유량 측면에서 소속병사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독서할 시간은 충분한데 읽을 책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원부대에서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비율이 전투부대에 비해 2배나 높게 나타난 것도 지원부대 소속병사들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표 3>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구분		A부대	B부대	전체	χ^2	
독서 방해요인	도서의 다양성/보유량 부족	미선택	74	52	126	10.38**
		선택	58.7%	41.3%	100%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부족	미선택	26	48	74	7.69**
		선택	35.1%	64.9%	100%	
	일정 독서시간의 보장	미선택	78	92	170	10.59**
		선택	45.9%	54.1%	100%	
개선 요구사항	도서의 다양성/보유량 확충	미선택	40	63	103	3.98*
		선택	38.8%	61.2%	100%	
	전문인력 배치	미선택	60	37	97	5.84*
		선택	61.9%	38.1%	100%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미선택	63	49	112	5.37*
		선택	56.3%	43.8%	100%	
		미선택	37	51	88	
		선택	42.0%	58.0%	100%	
		미선택	88	97	185	
		선택	47.6%	52.4%	100%	
		미선택	12	3	15	
		선택	80.0%	20.0%	100%	
		미선택	83	69	152	
		선택	54.6%	45.4%	100%	
		미선택	17	31	48	
		선택	35.4%	64.6%	100%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제언

병영도서관은 우리 장병들이 열악한 군 복무 환경에서도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사이의 근무환경 차이에 따라 병영도서관 이용실태에도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났으며, 따라서 향후 병영도서관 관련 업무 추진 또는 정책 수립시 획일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투부대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열악한 독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고정적인 근무체계를 고려하여 병영도서관의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일정한 독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줌으로써 도서관이 유희(遊休)시설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독서여건이 양호한 지원부대는 소장도서의 내실있는 확충을 통해 병사들의 요구수준을 차츰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대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동도서관 등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다양한 도서확보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지금까지의 획일화 된 병영도서관 접근에서 탈피하여 부대기능별 근무환경 차이를 고려한 병영도서관 운영 모델이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송승섭. 2009.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355-376.
 차미경, 송승섭. 2005. 병영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85-306.
 차미경, 송승섭. 2006. 우리나라 육군 병사들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33-351.